질병관리본부소식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ews Letter
2008년 8월호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B형간염 관리사업의 결과로 서태평양지역 중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성과 인증*(Certification)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공식적으로 올해 9월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한국의 B형간염관리 성과인증을 선언할 예정).

지난 7월 7일부터 5일간 개최된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기술자문회의에서는 한국의 B형간염 관리 성과가 소개되어 B형간염 관리의 성공적 사례로서 주목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이 한국에서 최초로 기술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예방접종 분야에서 서태평양지역에서 선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우리나라는 폴리오박멸 선언(2000년), 홍역퇴치선언(2006년) 사상충증퇴치선언(2008년) 등 질병관리 사업의 연이은 성공으로 지난 수년간 주목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더 많은 훌륭한 질병관리사업의 결과가 국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서태평양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번 B형간염 관리 인증과 함께 이종구 본부장의 기술자문위원 위촉 등을 계기로 한국이 향후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예방접종정책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에서의 선도국가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목 차

01 우리는 지금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B형간염 관리 인증

03 국제회의
건강정책 중장기 전략논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04 팀소개
신경계바이러스팀

06 여기는 검역소
동해의 건강 파수꾼 전염병지킴이 국립동해검역소

08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소식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

10 기술연수 및 세미나
미국 CDC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성 분석전문가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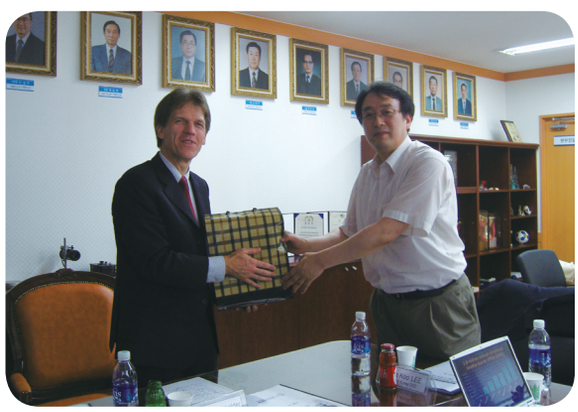
12 주요행사
질병관리본부 홍보 영상물 제작 완료
"변종 CJD/ CJD 전용 BL3 부검센터 및 진단협력센터" 방문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다함께 에이즈 예방을

이훈상
예방접종관리팀
hsl810@cdc.go.kr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예방접종과 그 사업을 선도하는 주요기관으로서 경험과 역량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예방접종 이외의 실험실 감시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18일에는 *미국 CDC의 국제 예방접종국(Global Immunization Division)의 책임자인 B. 벅홀더 박사(Dr. Brenton Burkholder)가 방문*하였다. B. 벅홀더 박사는 한국의 홍역 퇴치와 B형간염 관리 성과,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관련 국제협력 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향후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있어 한국 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제회의

민상희
만성병조사팀
shmin@cdc.go.kr

건강정책 중장기 전략 논의 위한 국제회의 개최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한미 국제회의 개최 및 양국간 협정서 체결-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주최 『한미 양국간 건강증진 종합계획 평가 및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가 지난 7월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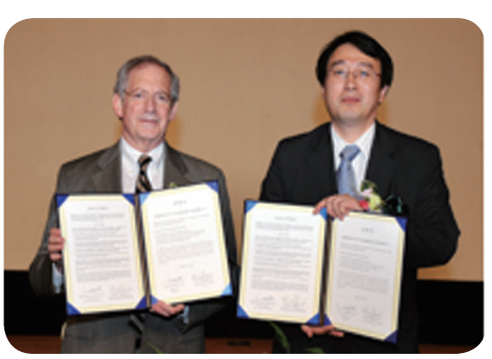
건강증진을 위한 양국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한국)과 Healthy People(미국)의 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및 2010년 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조사감시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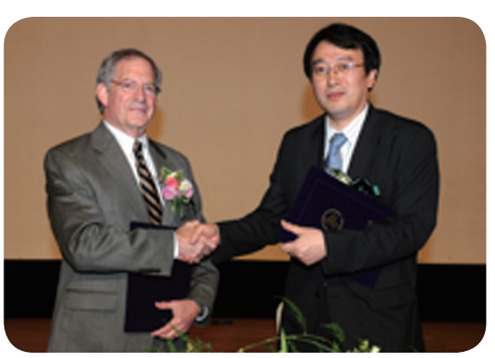
미국 보건후생성(DHHS) 보건 담당 차관보 R. 로열(RADM Royall)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보건통계센터장(NCHS) E. 손딕(Edward J. Sondik), 그리고 Healthy People Initiative의 추진 및 평가에 있어 주요 실무 담당자들(Carter Blakey, Richard Klein, Insun Kim)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류호영 국장, 이덕형 질병정책관, 류근혁 건강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김윤아 책임연구원 등이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학계 및 관련 담당자, 발표자들의 패널토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완성도 높은 국가 건강정책이 되기를 다짐한 이날 회의의 주요 성과는 *한미 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대한 정보교류 및 추진방향에 대한 공유, 건강통계체계 및 지표 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등이다.

그리고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관리본부 보건통계센터 두 기관 간 공동 연구수행, 연구원 상호 교류, 정보 공유, 공동 회의 및 학술대회 등 양국 상호 협력 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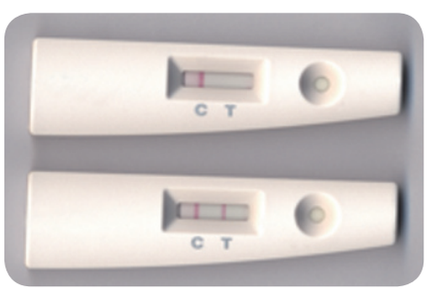
팀소개

신경계바이러스팀

신경계바이러스팀은 일본뇌염 이외에 10여종에 달하는 병원체들에 대한 진단, 실험실감시 및 관련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객중에서 많이 감염되는 뎅기열을 비롯하여 웨스트나일열 등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과 프리온에 의하여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들쥐에 의해 전파되는 신증후군출혈열, 인수공통전염병인 공수병, 그리고 해외유입전염병으로 고위험병원체에 속하는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전파 전염병 연구 및 감시

일본뇌염은 1975년부터 시작된 유행예측사업과 예방접종 등으로 인하여 최근 발생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근절단계까지 근접하였으나 자연계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매개모기 감시를 통한 유행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뇌염 감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진단킷트를 개발(아래 그림)하여 4시간여 걸리던 진단시간을 15분으로 단축시켜 일본뇌염 바이러스 증폭숙주인 돼지에서의 일본뇌염바이러스 활동을 용이하게 모니터링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미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발생은 없으나 해외감염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진단법을 구축하여 국내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뇌염, 뎅기열 등이 속해있는 플라비바이러스속에 속한 병원체들간의 교차반응을 해결하기 위해 중화항체가시험법 등 각종 진단 관련 시험방법을 구축하여 국가 표준실험실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과 연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2005년부터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을 설치하여 실험실 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기진단법 개발및 한국인 프리온 유전자다형성 연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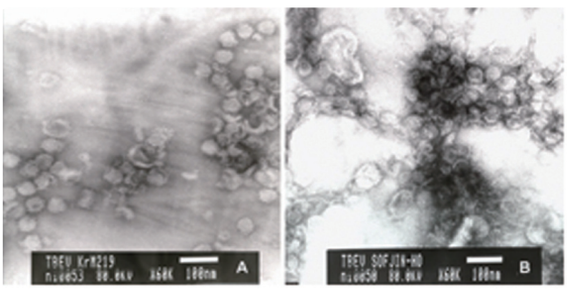
❖ 고위험병원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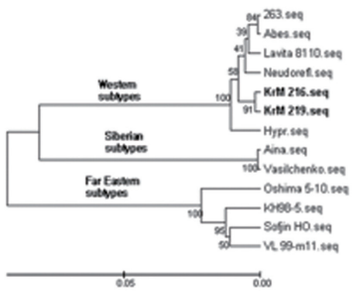
고위험병원체는 말그대로 전파가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병원체로 신경계바이러팀 소관 병원체인 에볼라, 마버그, 라싸 바이러스는 생물안전밀폐실험실 레벨 4(BL4)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BL4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 또한 BL4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실에서는 위험성을 줄이며 실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에볼라, 마버그, 라싸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합성하였으며, 진단법 구축에 필요한 항체 및 항원을 생산 중에 있다.

한명국
신경계바이러스팀
mghan@nih.go.kr

❖ 최근의 연구성과

1. 진드기 매개체로부터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를 국내에서 최초분리 보고하여 국내 진드기매개뇌염의 연구기반을 확립한바 있다.





2. 논문게재

(1) Kim SY et al. Isolation of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rom wild rodents, South Korea. Vector-Borne & Zoonotic Dis. 2008;8(1):7-13

(2) Kim SY et al. Molecular evidence for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in ticks in South Korea. Med Vet Entomol. 2008, in press.

(3) Yun SM et al. Analysis of the envelope (E)protein gene of tick-borne encephalitis viruses isolated in South Korea. Vector-Borne & Zoonotic Dis. 2008, in press.

3. 플라비바이러스 진단지침 개발 (발간등록번호 11-1460736-000062-14)



신경계바이러스팀은 현재 3개의 내부연구과제와 내부연구과제와 일본뇌염, 웨스트나일열, 뎅기열, 공수병에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부 과제 중에서 고위험병원체 관련연구는 원인병원체가 국제간 이동이 금지 되어 있어 연구에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진단법 구축 및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진단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한 진단법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 표준 실험실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관 병원체의 진단에 대한 ISO인증을 단계적으로 받고자 하며 일본뇌염의 경우 서태평양지역 표준 실험실 역할을 담당하기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감시분야에 있어서는 관련팀 및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과의 협조체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험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며,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사회화 문제가 되고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한다.

여기는 검역소

동해의 건강 파수꾼!! 전염병지킴이 국립동해검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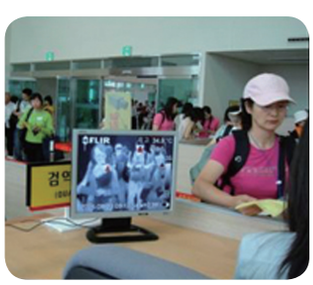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국립동해검역소는 1947년 주문진검역소를 시작으로 1966년 국립묵호검역소, 1980년 국립동해검역소로 개칭이 되어 그 아래에 속초지소와 고성지소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전국 13개 검역소 중 유일하게 선박, 항공기, 육로 검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국립동해검역소는 김유겸 소장 외 24명의 검역관이 동해항, 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양양국제공항 및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선박 및 항공기 검역업무 현황



동해항, 속초항 및 양양국제공항 등에서는 WHO지정 검역전염병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 및 그 승무원과 승객 전원에 대하여 발열감시와 검역질문서를 통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운송수단 및 유증상자(설사, 고열 등) 가검물을 채취하여 전염병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세균검사를 실시한다. 비 오염지역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무전검역을 실시한다.

❖ 육로 검역업무 현황



고성지소에서는 북한 금강산지역을 왕래하는 연 25천대의 차량과 관광객, 사업자 등 연 42만명(1일 4회 1,200명)에 달하는 금강산관광객에 대하여 3인1조 검역조를 편성하여 적외선열감지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 검역질문서, 유증상자 가검물에 대한 세균검사 등 연중무휴 빈틈없는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금강산 육로관광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향후 내금강관광 및 남북물류센터 완공으로 인한 남북한간 인적 · 물적 교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지속적인 전염병 예방홍보 등 전염병의 국내 유입 · 전파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검역구역내의 전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 계몽, 검역구역내 가검물 세균검사를 하고 양성균 검출시 관할시에 통보하고 있다.

❖ 전염병 국내유입 대비 대응시스템 구축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전염병환자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7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보건소, 병원 등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본소, 지소별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를 연2회 개최하고 있다.

최성경
국립동해검역소
bluebirdsk@hanmail.net

▷ 매년 2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생물테러, AI인체감염, 집단설사환자 등 발생대비)을 실시하여 검역관의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 전염병 예방 홍보

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매월 유관기관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국내 · 외 전염병 발생정보를 제공하고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집중 홍보의 날을 지정 · 운영하고 속초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정기여객선 대상으로 연2회 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해외유입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조사연구사업

▷ *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조사사업*

동해항, 속초항 등 검역구역 내 위생해충(모기) 밀도조사와 설치류 포획 및 페스트 매개여부 조사로 매개체를 통한 전염병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실태 조사연구사업*

동해 해양환경 내 서식하는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분포실태 파악 및 해수의 염도, 온도, 탁도 등 환경적 조건과 병원성 비브리오균과의 상관관계를 예측함으로써 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말라리아 퇴치 사업*

고성지소에서는 북한지역의 말라리아 유행과 관련하여 매개체인 모기의 밀도조사, 금강산 현지 방제사업, 장기체류자(사업자) 중 유증상자의 말라리아 감염유무 확인을 위한 채혈 및 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하여 말라리아 예방 ·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여름철 국립동해검역소만의 아주 특별한 사업

▷ *하계휴양시설 운영*

7.12~8.20일 동안 강원도 삼척시 소재 맹방해수욕장에 보건복지가족부 직원과 가족을 위한 하계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중형텐트 7동(1동 4인), 몽골텐트 1동(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 전기시설, 모기장 및 냉장고가 완비되어 있어 직원들에게 더욱 편리한 휴양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 *전염병예방 상설홍보관 운영*

하계휴양시설 운영기간 동안 능동적인 전염병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상설홍보관을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View box를 이용한 올바른 손 씻기 체험 행사, 말라리아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수칙 설명, 검역소 홍보를 위한 사진 전시회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채로운 홍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소식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

지난 7월 17일 우리 기관 오송이전 TF 팀은 오송이전 단지(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오송생명과학단지 B121-1외 1필지)를 방문하였다. 2010년 말 우리 기관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장의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 그리고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환경을 실사하여 오송이전에 따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장님이하 연구원 38명이 방문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들어갈 부지는 약 6% 공정이 진행되어, 바닥공사가 마무리 된 정도였다. 그림으로 보던 것보다는 넓어 보였고 주위 아파트단지는 금년 10월 초에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20대로부터 50대까지의 미혼으로부터 입시생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각양각색의 연구원의 주택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그리고 교육여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중간 길에 「오창 단지」를 돌아보니, *입주 후의 2년 후쯤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잘 단장된 모습이었다. 미래 모습도 이 이상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송 이전 시 연구기능향상을 위한 TF 모임을 가졌다. 국립보건연구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을 얻고자 함이었다. *미래의 주요 핵심단어가 협력과 융합(Fusion and Collaboration)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신행섭
연구지원팀
episome@nih.go.kr





2002년 준공된 오창과학단지 조성현황을 시찰하고 단지내 유한양행 공장을 둘러본 후,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현황 및 공사 진행을 견학하였다. 또 한국토지공사의 홍보동영상을 시청하여 연구협력 및 생활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이전시 직원들에게 현실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오송이전대비 수월성 성취를 위한 추진전략

분 류	추진항목	협력기관 (유관부서)
연구환경	1. 학연프로그램 강화 (기존 수도권 유지 및 충청지역권 대학 연계)	대학 및 연구기관
	2. 연구성과에 따른 포상제도	총무혁신팀
	3. 연구역할에 따른 논문저자권리 보장	자체기준
	4. 국내외 학회, 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원	총무혁신팀
교육환경 (개인계발)	1. 학비 지원	
	2. 직무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체기준
	3. 운동 및 문화 프로그램 참가지원	총무혁신팀
복지·생활환경	1. 연봉 개선 (연봉인상 및 차등 접근 : BK21 또는 KAIST수준)	
	2. 연금제도 (교육과학기수부의 과학기술인연금 제도 검토)	교육과학기술부
	3. 주거 및 교통환경 개선(기숙사 및 셔틀버스, 교통비 할인 등)	충청권 행정기관
	4.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자녀학자금 지원 및 특목고, 보육시설 유치 등)	
조직·근무환경	1. 정규직과 동등한 업무환경 개선 (교육, 회의 등)	총무혁신팀
	2. 비정규직 자체 프로그램 도입 (동호회, 모임, 협의회 등)	
기관 홍보	1. 충청권 및 우수 대학에 연구원구인 적극 홍보	대학 및 연구기관
	2. 국립보건연구원 홍보강화 (권역별 설명회 등)	
	3. 직원의 외부강의활동을 통한 대외인지도 향상	
전문연구원 교육강화	1. 국가기관으로서의 연구환경 강점 및 공공성 교육	자체교육

기술 연수 및 세미나

미국 CDC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성 분석 전문가 초청

❖ 배 경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대한 인체감염 위해도 평가는 주로 족제비(ferret)나 마우스와 같은 포유동물을 이용하여 병원성을 측정하는데, 이와 관련된 분석 체계는 미국 CDC 등 WHO 인플루엔자협력센터에서 생물학적 안전 3등급실험실(BSL 3)과 같은 특수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에서는 미국 CDC Influenzaus Branch와 협의를 통하여 전문가 2인(Dr. Terrence M. Tumpey, Dr. Jessica Belser)을 초청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병원성 분석 체계 확립을 위한* 방문 기술 연수(2008.7. 28 ~ 8. 8)를 기획하였다.

❖ 결 과

▷ 동물실험 연수

지난 7월 28일 ~ 8월 8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연구 생물안전밀폐실험실(BSL-3)' 내에서 포유동물(마우스와 족제비)을 이용한 병원성 분석관련 기술 연수가 수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동물 접종 및 관찰, 부검, 각 조직의 바이러스 역가 측정 등 관련 실험 방법에 대한 강의 및 실습과 고 위험 병원체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취급과 연관된 생물안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상황에 적합한 기법 확립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연수 결과는 앞으로 자체 동물실험을 통한 병원성 분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에서는 동물을 이용한 병원성 분석에 관심이 있는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하여 이번 연수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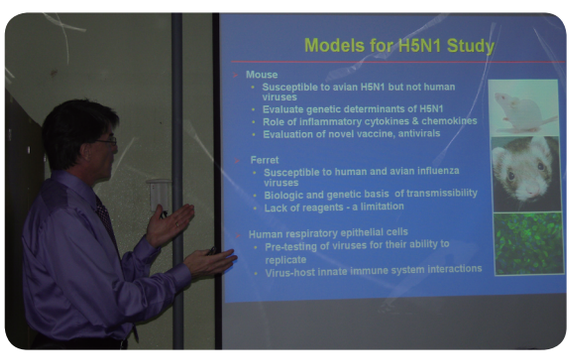
강 춘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ckang@nih.go.kr

▷ 세미나

미국 CDC 전문가의 방문 기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병원성 분석 및 결과 분석에 관해서 총 4회에 걸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주의 특징, 병원성 분석에 대한 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특히, 2008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금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성 분석 결과를 발표한 7월 30일 개최된 세미나에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외에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및 국내 가금산업 관계자등 25명이 참석하여 관련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 시 : 7월 28일 (월) 10:00
장 소 :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연 자 : Terrence M. Tumpey, Ph.D.(미국 CDC)
발표내용 : Overview of pathotyping in animal models

일 시 : 7월 30일 (수) 14:00
장 소 :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연 자 : Terrence M. Tumpey, Ph.D.(미국 CDC)
발표내용 : BSL3 + theoretical practices

일 시 : 2008년 7월 30일 (수) 10:00
장 소 :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
연 자 : Terrence M. Tumpey, Ph.D.(미국 CDC)
발표내용 : 2008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H5N1)의 포유동물 병원성 분석 결과
–족제비(ferret) 및 마우스를 이용한 병원성 조사

일 시 : 7월 31일 (목) 10:30
장 소 : 실험동 소회의실
연 자 : Jessica Belser, Ph.D.(미국 CDC)
발표내용 : Overview of ferret necrop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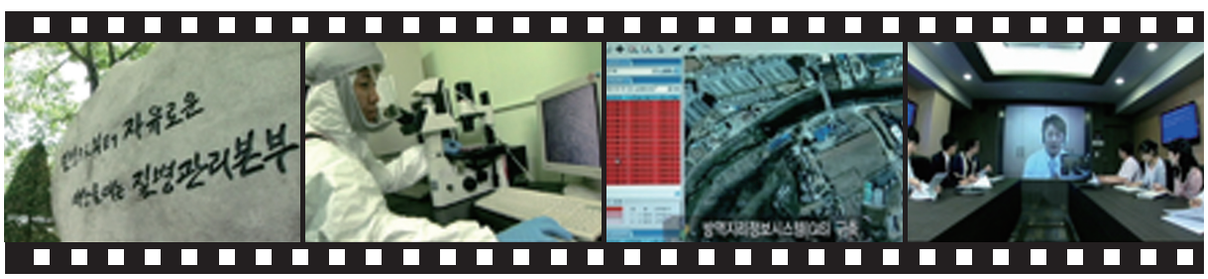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apotre@hanmail.net

주요행사

❖ 질병관리본부 홍보 영상물 제작 완료

질병관리본부는 건국이후부터 줄곧 국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활동해온 우리 선배들의 모습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우리 기관의 활동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이번 영상물은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었다. 일반인용은 6분 정도의 영상물로 국민들이 질병관리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 · 의료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10분 정도의 영상물로 제작되었다. 이 영상물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의 3개 언어로 제작되어 앞으로 우리 기관의 업무를 알고 싶어 하는 일반 국민들을 물론 우리 본부를 방문하는 국 · 내외 손님들에게 우리 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변종CJD/ CJD전용 BL3 부검센터 및 진단협력센터" 방문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변종 CJD/ CJD 전용 BL3 부검센터 및 진단협력센터"*** 를 방문하여 부검 및 생검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부검 센터는 전국에서 의뢰되어지는 CJD환자들에 대한 확진검사 의뢰체계 운영, 검사 지원, 부검 및 생검 등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6년 4월 개소 후 현재까지 부검 3건, 생검 6건을 실시하였다.

❖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다함께 에이즈 예방을!

「제4회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공모전」 개최

▷ 팀명 : 에이즈결핵관리팀
▷ 행사일시 및 장소 : 2008. 8. 11~2008. 11월 초
▷ 행사 내용
- 행사 홈페이지 : www.adaids.net
-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 주최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참가자격 : 전국 대학(원)생
  – 응모과제
  – 에이즈 예방 콘돔사용촉진 전략
  – 에이즈 감염인 편견차별해소 전략
  – 에이즈 자발적 검사 활성화 전략
  – 에이즈 바로 알리기(알기) 전략
- 시상 : 총 40작품
  – 대상(1작품)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 500만원
  – 금상(3작품) : 질병관리본부장상 / 각 100만원, 총 300만원
  – 은상이하(36작품)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상 / 총 290만원

▷ 담당자/연락처
- 에이즈 결핵관리팀 이윤재 홍보담당 : 02-380-2906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박용진 팀장 : 02-927-4071

ISSN 1976-7579
9 771976 757007 08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발 행 일 : 2008. 8월(통권 제9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박숙경, 배송미, 양은주,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